대한민국 청와대

보 도 자 료

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전력

- 이재명 대통령, 「자본시장 정책 간담회」 주재
- 기업·시장·투자자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

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(금) 오전 서울에서 「자본시장 정책 간담회」를 주재한다. 간담회의 슬로건은 '신뢰받는 자본시장,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'로, 기업·시장·투자자의 측면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간담회에는 민간, 국회, 정부, 청와대 등에서 약 80명이 참석한다. 민간에서는 기업, 투자자,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. 국회는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간사, 그리고 오기형 민주당 K-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 참석한다.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,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.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, 정책실장, 경제성장수석 등이 함께 자리한다.

행사는 국민의례와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, ▲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, ▲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, ▲증시의 장기·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을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 3인이 차례로 발제한다. 이어 참석자들은 1부와 2부로 나눠 약 67분간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. 아울러 이날 행사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. <끝>